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의 중다매개효과*

이선희(李善姬)**

권재환(權載桓)***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 이타성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을 설정하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SEM)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중다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모형(phantom model)을 구성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다문화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한 매개변인인 대인관계능력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타성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은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모양육태도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 증진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부모양육태도, 다문화수용성, 대인관계능력, 이타성, 중다매개

* 이 논문은 2018년 동신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송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I. 서론

198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19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부터는 결혼이민도 급증하면서 한국사회에도 해외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주민의 유입으로 문화적·인종적 다양성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다문화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이선주 외, 2009; 한국염, 2007). 외국인 입국자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가정을 꾸리거나 자국의 가족들을 불러오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이들의 2세도 증가하고 있다(김승경, 양계민, 2012). 한국사회는 장단기 이주 근로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다문화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배타적인 태도(박주희, 정진경, 2008),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결혼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무시, 이주아동에 대한 따돌림(장임숙, 이원일, 2011),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체성의 혼란, 심리적 스트레스 및 소외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강혜정, 임은미, 2012) 등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거리감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회적 갈등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교육의 실태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에 의하면(설동훈, 2005; 전경숙, 2008),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주요 원인은 국내의 일반가정 아동들의 차별과 편견에 있었다.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낮은 학업성취도 등 부정적 현상을 낳게 된다(오성배,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런 경험들은 사회성 발달이나 정체감 형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홍정미, 2009). 따라서 내국인들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다른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문화수용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반영이론(social reflection theory)에서는 자녀가 가지는 편견적 태도는 부모의 가치와 태도를 반영한다고 본다(Nesdale, 1999). 부모의 처벌적이고 지배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민경환, 1989; 양계민, 2009).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각된 인식이나 편견은 청소년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강희연, 2006; 고아라, 2005).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을 다룬 2n의 연구들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유종렬, 1997)나 다문화적 인식(장인실, 이혜진, 2010)에 영향을 미친다. 권위적인 부모는 그들 자녀에게 인종적 편견을 형성시키며,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인종적 편견이 적다(Furnham & Stacey, 1991). 즉,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지

고 있을수록 자녀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반면,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낮춘다(설은정, 정옥분, 2012; 장인실, 이혜진, 2010). 이는 인종 집단에 대한 태도와 편견이 부모와 자녀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여러 연구결과들(Carlson & Iovini, 1985; Hughes & Johnson, 2001; Sinclair, Dunn, & Lowery, 2005)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런데, 일부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적 거리감을 다룬 윤인성(201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권위주의적 부모양육태도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최지영과 김재철(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력이 없는 반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 자체보다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방식이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은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다문화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상호작용 방식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타인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는 능력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이를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고 먼저 이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 발달에 기초가 되며(Egeland, Carlson, & Sroufe, 1993),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 협동심, 우호적 행동, 또래 상호작용, 타인 이해 등 전반적 사회성 발달과 관계가 있다(김길자, 2006; Kagman, 1971). 부모-자녀간 관계를 통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확립해 나가고 친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며(손남숙, 이숙희, 2008), 타인들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박주희, 2001),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 만족도(박현정, 천성문, 주동범, 2011; 윤혜영, 2013), 대인문제해결사고와 공감능력(이순자, 오숙현, 2004), 대인관계 적응(이미란, 2004), 사회적 유능성(전정미, 2005) 등 대인관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부모의 자율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는 사회적 성숙도를 높여주어서(김태정, 2008; 이계숙, 2003), 이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기술이 형성된다(김길자, 2006; Kagman, 1971; Youniss, 1980). 그러나 단지 대인관계능력이 높다고 해서 다문화수용성이 증진된다고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대인관계능력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다문화수용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음으로써 도덕적인 기준을 내면화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게 된다(김희정, 2003). 부모는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첫 대상이며 의미 있는 모델링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는가, 부모가 이타적 행동경향을 얼마나 보이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Dunn, Kendrick, & MacNamee, 1981; 송은경, 2003에서 재인용). 또한 자녀가 이타행동을 했을 때, 물질적·사회적·정서적 강화를 받으면 그 강화가 미래에 이타행동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Kurtines & Gewirtz, 1995). 특히 어른들이 아동의 이타적인 행동들을 강화함으로써 이타적 관심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존경하는 어른이나 온정적인 어른에 의해 언어적인 강화를 받을 경우 이타성이 증진된다(Shaffer, 1999/2000).

그러나 부모양육태도와 이타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몇몇 연구들은 부모의 민주적·온정적·수용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이타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길자, 2006; 김학령, 김정화, 김익중, 2011; 이민영, 김광웅, 2011). 부모와 자녀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장한 자녀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개방적이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고 또래와 상호 협력적이다(전정미, 2005). 또한 자신의 욕구에 덜 집착하고 타인의 욕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Barnett, 1987). 반면,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타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개인의 친밀감 형성능력을 방해하기 쉽다(Joireman, Needham, & Cummings., 2001). 이와 같이 이타성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대인관계에서 친구들이 많이 있는 아이들은 이타성이 높고(Sandling, 1980) 또래들과 높은 친밀감을 유지할수록 이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Mannarino, 1976). 대인관계능력의 기반이 되는 공감능력은 이타적 성향을 발현시킨다(서병곤, 2006; 조효진, 2006). 실제로 또래관계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들은 협동, 양보, 돕기 그리고 나누어주기 등 이타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류정임, 2000; 이복주, 1999; 천혜경, 1998). 이타성은 친사회적 행동에 속하지만, 친사회적 행동이 반드시 이타적 행동은 아니다. 이타적 행동은 외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즉, 순수한 이타성은 행동의 동기와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이지연, 이항심, 2007). 이타성은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수용되는가를 결정하는 특성이며, 나아가 집단 내에서 개개인이 지닌 이타적 특성은 개인과 집단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정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조화태, 김계현, 전용오, 2008).

대인관계에서 곤경에 처한 타인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 볼 수 있는 능력은 이타적 동기를 발생시킨다(Batson & Coke, 1981; Hoffman, 1987). Sandling(1980)은 친구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이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책임감도 높다(Eisenberg & Mussen, 1989; Feshbach, 1975; Hoffman, 1982). Emily, Shelly와 Letitia(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희생 동기가 강한 사람은 대인관계의 질과 정적인 관련이 있지만 자기희생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의 질

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들(류정임, 2000; 이복주, 1999; 천혜경, 1998)에서도 또래관계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들은 또래집단 내에서 협동, 양보, 돕기, 나누어주기 등 이타적인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이타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은 다문화수용성과 관계가 있다. 친밀한 대인관계는 다문화수용성을 높여주고(이자형, 김경근, 2013; 정석원, 정진철, 2012), 타인을 위한 이타적 활동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최지영, 김재철, 2015). 공감-이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도움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를 통해 이타적인 동기가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Batson & Coke, 1981; Hoffman, 1987). 이와 같이 타인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공감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행동·감정·인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Gruse, Goodnow & Cohen, 1996). 특히 이타성의 바탕이 되는 공감은 이타적 행동을 비롯한 친사회적인 행동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Batson et al., 1997; Eisenberg & Miller, 198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인관계능력이나 이타성과 같은 사회 친화적 요인들은 다문화수용성 관련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정석원, 정진철, 2012),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이자형, 김경근, 2013). 그러나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런데 부모양육태도와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나 이타성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중다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강금주(2015)의 연구,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김길자, 2006) 등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은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를 통해 길러질 수 있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능력은 이타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사회적 친밀감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능력은 사회적 친밀감과 공감능력 증진을 통한 이타성을 발현해서 다른 환경이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 및 이타성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하고, 이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기술과 이타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각 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적 기제를 이해하고, 나아가 다문화사회에서의 부모교육과 학교현장에서의 생활지

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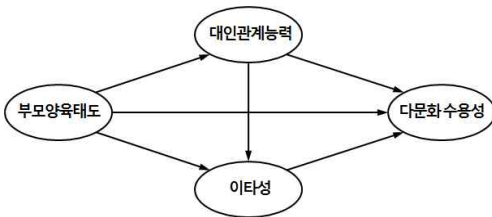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 이타성 및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매개로 해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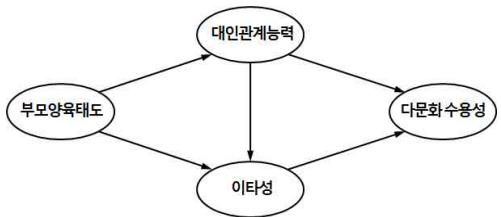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 종속변인으로는 다문화수용성을 설정한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매개변인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설정한 중다매개모형을 구성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매개변인인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매개모형([그림 1])을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외에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추구한다(홍세희, 2000). 따라서 연구모형보다 더 간명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지지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윤인성(2011), 최지영과 김재철(2015) 등의 연구, 그리고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능력(강금주, 2015; 김길자, 2006; Kagman, 1971; Egeland, Carlson, & Sroufe, 1993)과 이타성(김길자, 2006; 김학령, 김정화, 김익중, 2011; 이민영, 김광웅, 2011)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능력은 이타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서병곤, 2006; 조효진, 2006; Mannarino, 1976; Sandling, 1980), 나아가서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

(강금주, 2015; 김길자, 2006)을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완전매개모형(그림 2)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대상

청소년기는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화의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수용성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유안나, 김순규, 이주재, 2018). 청소년기가 되면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중심성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떠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진다(윤정연, 2001). 그런데 다문화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인지가 덜 발달되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는 감수성 측정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박혜숙,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60만 명의 패널을 가지고 있는 전문 리서치기관인 N 리서치를 통하여 온라인 패널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일주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 시험기간이 아닌 기간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37부 중 무응답이 많거나 무성의한 자료 37부를 제외한 300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중학생 102명(34%), 고등학생 198명(66%)이었고, 남학생 124명(41.3%), 여학생 176명(58.7%)이었다.

3.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부모양육태도 지각척도’를 임선화(1988)가 4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적대 10문항(예: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얘기한다.), 자율-통제 10문항(예: 부모님은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성취-비성취 10문항(예: 부모님은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합리-비합리 10문항(예: 부모님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 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주시는 편이다.)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 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선화(1988)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애정-적대 .78, 자율-통제 .72, 성취-비성취 .72, 합리-비합리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애정-적대 .82, 자율-통제 .72, 성취-비성취 .81, 합리-비합리 .83이었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2) 대인관계능력 척도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은 Schlein과 Guerney(1971)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1980)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강준기(2014)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만족감 4문항(예: 나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만족한다.), 의사소통 5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에 민감하다.), 신뢰감 3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친근감 3문항(예: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원만하다.), 민감성 2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차린다.), 개방성 4문항(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표현이나 마음은 열려있다.), 이해성 4문항(예: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등 7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점수는 만족감 .83, 의사소통 .78, 신뢰감 .65, 친근감 .79, 민감성 .80, 개방성 .84, 이해성 .79였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만족감 .86, 의사소통 .70, 신뢰감 .69, 친근감 .70, 민감성 .65, 개방성 .84, 이해성 .79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였다.

3) 이타성 척도

청소년의 이타성은 Bal-Tal의 돕기상황 검사(1979)를 참고하여 천영옥(1996)이 사용한 이타성 척도를 이현숙(1999)이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가 .60 이상인 공감, 조력, 협력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선택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 중 공감 6문항(예: 나는 신체 장애자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을 도와준 적이 있다.), 조력 6문항(예: 내 일이 밀려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잘 도와주는 편이다.), 협력 6문항(예: 일할 능력이 없어서 길라나 터미널, 지하도 등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다.)의 3개 하위요인으로 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이현숙(199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공감 .74, 조력 .70, 협력 .74였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공감 .82, 조력 .78, 협력 .79였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4) 다문화수용성 척도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측정은 김미진과 정옥분(2010)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실정을 반영하여 구성한 '다문화수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15문항(예: 우리 반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다면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다문화적 인식 6문항(예: 다문화가정 자녀를 외모가 다르다고 놀리지 않는다.), 다문화적 개방성 8문항(예: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내가 무엇이든지 잘한다고 느낀다.-역채점 문항), 다문화적 공감 4문항(예: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놀림을 받으면 마음이 아프다.)의 총 33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된 척도이고, 부정적인 진술문항은 역 채점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음으로 해석한다. 김미진과 정옥분(2010)이 척도 개발 시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93, 다문화적 인식 .74, 다문화적 개방성 .76, 다문화적 공감 .68, 그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95, 다문화적 인식 .87, 다문화적 개방성 .77, 다문화적 공감 .80, 그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이어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통하여 경쟁모형과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χ^2 값과 RMSEA, TLI, CFI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각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의 중다매개효과(multiple mediated effects)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모형(phantom model)을 구성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경로에서 매개효과의 추정값이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측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측정된 변인들의 정규성 검토를 하였다.

<표 1> 측정변수들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52**	1																	
3.	.75**	.55**	1																
4.	.60**	.54**	.56**	1															
5.	.37**	.23**	.36**	.27**	1														
6.	.38**	.24**	.35**	.21**	.59**	1													
7.	.33**	.17**	.30**	.24**	.64**	.65**	1												
8.	.41**	.25**	.38**	.31**	.74**	.75**	.77**	1											
9.	.35**	.17**	.31**	.18**	.65**	.72**	.59**	.73**	1										
10.	.33**	.18**	.32**	.22**	.71**	.78**	.77**	.84**	.75**	1									
11.	.41**	.26**	.38**	.28**	.67**	.76**	.67**	.73**	.73**	.74**	1								
12.	.37**	.25**	.44**	.27**	.50**	.55**	.55**	.56**	.44**	.53**	.57**	1							
13.	.38**	.13*	.37**	.24**	.56**	.56**	.55**	.57**	.53**	.61**	.58**	.72**	1						
14.	.40**	.22**	.41**	.26**	.53**	.58**	.57**	.59**	.50**	.59**	.58**	.85**	.79**	1					
15.	.34**	.29**	.39**	.17**	.30**	.40**	.43**	.39**	.26**	.34**	.36**	.52**	.33**	.48**	1				
16.	.28**	.30**	.33**	.09	.16**	.26**	.30**	.23**	.11	.16**	.22**	.40**	.14*	.36**	.85**	1			
17.	.12*	.27**	.20**	.14*	.04	.07	.10	.06	-.02	.01	.05	.20**	.03	.16**	.43**	.51**	1		
18.	.29**	.22**	.33**	.13*	.26**	.36**	.37**	.37**	.23**	.30**	.32**	.44**	.29**	.47**	.77**	.78**	-.39**	1	
M	2.74	2.79	2.82	2.60	3.33	3.55	3.53	3.49	3.32	3.37	3.53	3.70	3.23	3.53	3.10	3.30	1.95	3.15	
SD	.31	.31	.38	.25	.82	.65	.70	.73	.85	.78	.72	.68	.73	.70	.52	.53	.53	.57	
skewness	.08	.27	.14	.09	-.04	.36	-.11	.09	-.02	.03	.01	-.42	-.03	-.28	-.52	-.42	.65	-.37	
kurtosis	.14	.62	-.20	.33	-.13	.10	.32	-.15	-.28	-.11	.17	.81	.21	.53	1.20	-.10	.87	.20	

* $p < .05$, ** $p < .01$

주) 1. 애정-적대 2. 자율-통제 3. 성취-비성취 4. 합리-비합리
 5. 만족감 6. 의사소통 7. 신뢰감 8. 친근감 9. 민감성 10. 개방성 11. 이해성
 12. 공감 13. 조력 14. 협력
 15.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16. 다문화적 인식 17. 다문화적 개방성 18. 다문화적 공감

일반적으로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점수가 ±1.965를 벗어나는 경우 .05 유의수준에서, ±2.58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01 유의수준에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관측변수들의 왜도(-.52~.82)와 첨도(-.28~1.20)의 값이 ±1.96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은 대인관계능력, 이타성 및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들과 거의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능력, 이타성 및 다문화수용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이타성 및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들도 대부분 정적 상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들과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인 '다문화 개방성'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성의 하위요인들도 역시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들과 대부분 정적 상관을 보였고, '다문화 개방성'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인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 이타성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은 상호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 잠재변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부모양육태도	애정-적대	1.000	.923		
	자율-통제	.530	.597	.048	11.056***
	성취-비성취	.888	.825	.051	17.382***
	합리-비합리	.894	.750	.059	15.217***
대인관계능력	만족감	1.000	.776		
	의사소통	.843	.834	.052	16.078***
	신뢰감	.906	.821	.058	15.717***
	친근감	1.027	.905	.057	17.913***
	민감성	1.089	.821	.069	15.697***
	개방성	1.118	.913	.062	18.141***
	이해성	.941	.832	.059	16.030***
이타성	공감	1.000	.887		
	조력	.994	.825	.052	19.217***
	협력	1.097	.942	.044	24.694***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적 관계형성능력	1.000	.900		
	다문화적 인식	1.081	.967	.043	25.231***
	다문화적 개방성	.556	.500	.062	8.961***
	다문화적 공감	1.034	.845	.053	19.569***

* p<.05, ** p<.01, *** p<.001

각 잠재변인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각의 잠재변수에서 관측 변수로 가는 경로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문항의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우종필, 2012).

2. 구조적 관계모형의 검증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능력, 이타성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간의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검증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에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수인 χ^2 값, TLI, CFI, 그리고 RMSEA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두 공분산행렬 간에 차이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정통계량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TLI와 CFI는 일반적으로 .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RMSEA는 χ^2 통계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인데 일반적으로 .05 이하면 매우 좋고, .08 이하면 양호하며, .1 이하면 보통의 적합도로 판단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χ^2 값은 279.593,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χ^2 값은 287.029로 나타났고 각각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인 TLI와 CFI 값과 절대적합지수인 RMSEA 값을 통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의 모든 적합지수가 경쟁모형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경로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이 두 변인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조모형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279.593***	123	.956	.965	.065 (.055-.075)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287.029***	124	.955	.963	.066 (.056-.076)
비교	7.436***	1			

*** $p < .0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외생변인에서 내생변인으로 가는 경로인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계능력'($\beta = .382, p < .001$), '부모양육태도 → 이타성'($\beta = .174, p < .001$), '부모양육태도 → 다문화수용성'($\beta = .174, p < .01$)의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생변인들 간의 경로인 '대인관계능력 → 이타성'($\beta = .639, p < .001$), '이타성 → 다문화수용성'($\beta = .400, p < .001$)의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 → 다문화수용성'($\beta = .059, p = NS$)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 제시한 6개의 경로 중 '대인관계능력 → 다문화수용성'을 제외한 5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대인관계능력 ← 부모양육태도	.691	.382***	.107	6.436
이타성 ← 부모양육태도	.298	.174***	.087	3.416
이타성 ← 대인관계능력	.605	.639***	.057	10.637
다문화수용성 ← 부모양육태도	.233	.174**	.083	2.822
다문화수용성 ← 대인관계능력	.044	.059	.064	.680
다문화수용성 ← 이타성	.313	.400***	.065	4.809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6개 경로들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인과적 효과를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이타성에 직접적인 영향($\beta = .174, p < .001$)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beta = .244,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beta = .174, p < .01$)을 미침과 동시에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beta = .098,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beta = .059, p = NS$) 이타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beta = .256,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다중상관치(SMC)를 산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하는 변량은 14.6%, 이타성을 설명하는 변량은 52.3%,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는 변량은 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능력이나 다문화수용성보다 이타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대인관계능력 ← 부모양육태도	.382***	-	.382***	.146
이타성 ← 부모양육태도	.174***	.244**	.418***	.523
이타성 ← 대인관계능력	.639***	-	.639***	
다문화수용성 ← 부모양육태도	.174**	.098**	.272***	.293
다문화수용성 ← 대인관계능력	.059	.256**	.315***	
다문화수용성 ← 이타성	.400***	-	.400***	

주. Bootstrap=500, 추정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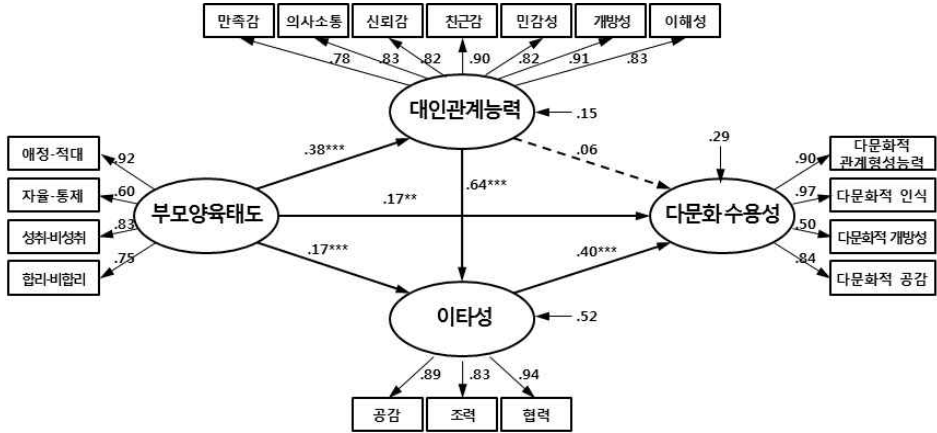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3. 최종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대인관계능력 → 다문화수용성’의 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 표준화 경로계수를 포함한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표 6> 최종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조모형	χ^2	df	TLI	CFI	RMSEA
최종모형	260.262***	122	.961	.969	.062 (.051-.072)
기준값	-	-	.9 이상	.9 이상	.1 이하
판정	$p < .001$	-	매우 적합	매우 적합	적합



[그림 3]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최종모형의 χ^2 값은 260.262($p < .001$), 증분적합지수인 TLI와 CFI의 값은 각각 .961과 .969로 나타나 적합도 판정기준인 .9 이상의 값보다 높은 매우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절대적합지수인 RMSEA의 값은 .062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을 대상으로 팬텀모형(phantom model)을 구성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모든 경로가 매개효과의 추정값이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계능력 → 이타성)의 경로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추정값 = .560, 95% CI = .390, .796, $p < .05$), (부모양육태도 → 이타성 → 다문화수용성)의 경로에서 이타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정값 = .113, 95% CI = .046, .211, $p < .01$). 또한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계능력 → 이타성 → 다문화수용성)의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경로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정값 = .172, 95% CI = .094, .269, $p < .05$).

<표 7> 최종모형의 중다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p	95% CI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계능력 → 이타성	.560	.103	.015	.390, .796
부모양육태도 → 이타성 → 다문화수용성	.113	.039	.006	.046, .211
부모양육태도 → 대인관계능력 → 이타성 → 다문화수용성	.172	.047	.020	.094, .269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능력 및 이타성,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경로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중다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수용성의 심리적·환경적 기제를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에서의 부모교육과 학교현장에서의 생활지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애정적·자율적·성취적·합리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유종렬(1997)의 연구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초등학교 자녀의 다문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장인실과 이혜진(2010)의 연구,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설은정과 정옥분(2012)의 연구 등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행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종속변인인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한 본 연구모형의 6개 경로 중 '대인관계능력 → 다문화수용성'의 경로를 제외한 5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능력 및 이타성과 다문화수용성에, 대인관계능력은 이타성과 다문화수용성에, 이타성은 다문화수용성에 각각 유의미하여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부 연구들은 대인관계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 연구들이 있었다. 예컨대, 최지영과 김재철(2015)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 봉사활동,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교사지원, 교사열의, 교우관계 등이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견남, 김영은과 이기용(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또래관계 등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의존하는 접촉이 일어나야만 집단 간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적개심과 편견이 감소되기 때문에(한규석, 1995) 본 연구의 결과는 단지 대인관계능력만 높다고 해서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공감과 조력 및 협력 등과 같은 이타적인 태도변화가 있었을 때만이 진정으로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한 개의 경로(대인관계능력

→ 다문화수용성)를 제외하고 채택한 최종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모형을 대상으로 팬텀모형(phantom model)을 구성하여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이타성의 중다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능력, 이타성,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구조적 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이타성을 높여주어서 간접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에 영향을 미쳐서 이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대인관계능력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타성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큰 변화 중의 하나인 다문화 연구의 초점을 다문화가족이 아닌 내국인 일반가정의 자녀에 맞춰서 그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적·환경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대인관계 증진과 함께 이타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과 생활지도,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위한 다문화수용성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동안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었던 반면, 일부 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에는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을 길러줄 수 있는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인관계능력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은 확인 되었으나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인관계 만족감, 의사소통능력,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그리고 이해성 등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적 요인인 이타성을 증진시켜서 다문화수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대인관계 증진과 함께 이타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

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능력이나 다문화수용성보다는 이타성을 가장 많이 높여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을 높여주고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지만, 무엇보다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타인을 돕는 친사회적 행위로 이어지는 이타성이 다문화수용성의 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이 이타성과 이타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높은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것이 이타성의 발현으로 이어져서 친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실제 도울 수 있는 조력과 협동심을 함양하는 자기지도력 향상과 협동심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도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들에게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자녀와의 대인관계 증진과 이타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수용성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발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녀들이 다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기일 것이다. 또한 발달단계나 학교급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태도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른 연령이나 다른 학교급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다양한 환경적 특성들도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적·환경적 변인들을 포함하여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 이타성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적 모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인에 대한 이타성을 증진시켜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킨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은 대인관계능력이 공감과 조력 및 협력 등과 같은 이타적인 태도변화가 있었을 때만이 진정

으로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다문화수용성 교육,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수용성 교육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금주(2015).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대인관계만족의 중다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강준기(2014). 군 병사의 내현적 자기애와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 강혜정, 임은미(2012).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3(4), 35-57.
- 강희연(2006). 통합학급 일반유아의 장애인식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7(6), 123-148.
- 고아라(2005). 수도권 초등학생의 인종 편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길자(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미진, 정옥분(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 69-88.
- 김승경, 양계민(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이중언어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태정(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귀인성향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학령, 김정화, 정익중(2011).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력 검증: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6, 261-288.
- 김희정(2003).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류정임(2000). 감정조망수용능력 및 친 사회적 행동과 유아의 인기도와와의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문선모(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일연구. **경상대논문집**, 19, 195-204.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대학생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46-168.
- 박주희, 정진경(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21.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2011). 중학생의 부모화 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지각이 대인관계문제에

-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직업교육연구**, 30(2), 35-49.
- 박혜숙 (2018). 중고생 대상 인권감수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교육심리연구**, 32(3), 443-469.
- 서병곤(2006). 공감훈련이 청소년의 공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 설은정, 정옥분(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91-114.
- 손남숙, 이숙희(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만 4세-6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49-77.
- 송은경(2003).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성격특성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양계민(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오성배(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스인'(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0-32.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유안나, 김순규, 이주재 (2018).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221-228.
- 유종렬(1997). 가족환경요인이 타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윤인성(2011). 일반아동의 다문화가정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윤정연(200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윤희영(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이건남, 김영은, 이기용(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 1-14.
- 이계숙(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미란(2004). 부모-자녀 및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존감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이민영, 김광웅(201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통제와 친구 갈등해결.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 이복주(1999). 유아의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이선주, 민무숙, 신현옥, 이태정(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II):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9-28-0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순자, 오숙현(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와 공감능력과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6(2), 333-353.
- 이자형, 김경근(2013).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1), 53-77.
- 이지연, 이향심(2007). 이타주의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또래 수용도. **홀이스틱교육연구**, 11(2), 15-29.
- 이현숙(199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임선화(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장인실, 이해진(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다문화교육연구**, 3(1), 55-87.
- 장임숙, 이원일(2011).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15(4), 177-199.
- 전경숙(2008). **다문화 교육 정책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전정미(2005).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성.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석원, 정진철(2012).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5(1), 51-68.
- 조화태, 김계현, 전용오(2008). **인간과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조효진(2006). 공감능력과 이타 성향 간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천영옥(1996). 아동의 이기심과 이타심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 및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천혜경(1998). 유아의 또래 수용도와 친구 관계 개념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최지영, 김재철(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 한국염(2007).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의 실상과 과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정책' 제대로 보기 토론회.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 홍정미(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Barntt, M. A. (1987). *Empathy and related response in child*. In N. Eisenberg & J. Stayer (Ed.), *Empathy and Its Development*, 146-16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al, D. (1979). *Futher evidence regarding the sequential development of helping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Bienntal Com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at for the Study of Behavior Development, ED, 180-592.
- Batson, D. D., & Coke, J. S. (1981). *Empathy: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In J. P. Rushton & R. M. Sorrentino (eds.), *Altruistic and helping behavior: Social,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tson, C. D., Sager, K., Garst, E., Kang, M., Rubchinsky, K., & Dawson, K. (1997). Is empathy-induced helping due to self-other mer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495-509.
- Carlson, J. M., & Iovini, J. (1985). The transmission of racial attitudes from fathers to sons: A study of Blacks and Whites. *Adolescence Scopus*, 20, 233-237.
- Dunn, J. F., Kendrick, C., & MacNamee, R.(1981). The reaction of first-born children to the birth of a sibling: Mother's repor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1), 1-18.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a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17-528.
- Eisenberg & Miller.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ily, A. I., Shelly L. G. & Letitia A. P.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 and benefit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5-30.
- Furnham, A. & Stacy, B.(1991). *Young people's understanding of society*. York : Routledge.
- Gruse, J. E., Goodnow, J. J., & Cohen, L. (1996). Household work and the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999-1007.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Hoffman, M. L. (1987). *Empathy, its development and prosocial implication*. In H. E. Howe, Jr. & C. B. Keasey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 Hughes, D., & Johnson, D. (2001). Correlates in children's experiences of parent's racial socialization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4), 981-955.
- Joireman, J. A., Needham, T. L., & Cummings, A. (2001). Relationships between dimensions of attachment and empathy.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 63-80.
- Kagman, J. (1971). *Change and continuity in infancy*. New York: John Wiley.
- Kurtines, W. M., & Gewirtz, J. L. (1995).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1*. Boston, MA: Allyn & Bacon.
- Mannarino, A. P. (1976). Friendship patterns and altruistic behavior in preadolescent males. *Developmental Psychology*, 12(6), 555-556.
- Nesdale, D. (1999). *Social identity and ethnic prejudice in children*. In P. Martin & W. Noble (Eds.), *Psychology and society* (pp.92-110). Brisbane: Australian Academic Press.
- Sandling, K. M. (1980).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preadolescent friendship.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Schlein, S. P., & Guernsey, B. G. (1971).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haffer, D. R. (2000).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5rd.)]**. (송길연, 김수정, 이지연, 양돈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99에서 출판)
- Sinclair, S., Dunn, E., & Lowery, B.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acial attitudes and children's implicit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3), 283-289.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논문접수 2018년 11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12월 7일 / 게재승인 2018년 12월 19일

* 이선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 및 동신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송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및 (사)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sunh0747@hanmail.net

* 권재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교육학석사 및 전남대학교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hkwon@dsu.ac.kr

Abstract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ltru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dolescents*

Lee, Sun-hee**

Kwon, Jae-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structural model between parental attitud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ltruism,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dolescents and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ltru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r this study,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300 South Korean youths in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to collect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In addition, a phantom model was construct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by using a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ttitudes were shown to not only directly affec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ut also indirectly affec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ltruism. Seco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hich is a mediating variable, was shown to have no direc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ut was shown to affect altruism thereby indirectly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ltruism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 youth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have a parenting attitude to understand and accept multicultural society from the home. And it suggests that educational intervention is needed to improve interpersonal ability and altruism.

Key words: Parental Attitude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ltruism, Multiple Mediate

* This study was editing and supplementing doctoral thesis of Dongshin University in 2018.

** First author, Adjunct Professor, Songwo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ongshin University